

# 한국 근대 희곡의 플롯 유형에 대한 기초 연구\*

-작품 행위소의 주제어 분류, 검색, 활용을 통하여

김만수\*\*

〈차례〉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과 범위
3. 연구 방법론
4. 여섯 개의 플롯 유형에 관한 기초 연구
5. 플롯 유형에 관한 기초 연구의 활용 가능성

## 1. 연구 목적

우리는 문학작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는 마치 수없이 많은 생물들을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 계통을 세우고 분류하는 일의 어려움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학자 린네는 독특한 분류법을 활용하여, 수백만종에 이르는 개별 생물들간의 특성을 고려한 계통수를 만들고 이에 따라 생물의 생성과 진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러시아의 민담을 연구한 블라디미르 프로프는 이러한 린네의 분류법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A00067)

\*\* 인하대학교 교수

에 경탄을 표하면서, 문학작품에도 이와 같은 과학적 분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러시아의 민담을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한 다음, 이들 민담 특히 탐색담이 일곱 유형의 등장인물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들이 개별적인 이야기 속에서 31 개의 이야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물론 개별적인 민담 수행에 있어서는 이들 7개의 인물 유형, 31 개의 이야기 기능 중에서 어느 부분이 확장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담들은 이러한 유형의 형태론을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로프는 이러한 유형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술한 이야기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한 셈이다.<sup>1)</sup> 그리고 그의 연구는 위베르스펠드의 ‘연극기호학’, 토도로프의 ‘산문의 시학’, 제랄드 프랭스의 ‘서사학’ 등의 연구로 이어져 세상에 존재하는 술한 이야기들을 어떠한 분류기준에 의해 과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의 발전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sup>2)</sup> 이들 연구는 설명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온 이야기 양식을 어떤 표준적인 근거에 의해 계량화하려는 분석적 과학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sup>3)</sup>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근대 희곡을 대상으로, 이들 희곡의 주제를 함축한 ‘주제어’를 추출한 다음, 이들 주제어들의 공통적인 속성에 따라 대분류를 시도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근대 희곡의 플롯 유형을 탐색하는 기초적인 자료로 삼는다.

물론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플롯 유형은 다양하다. 아리스토텔레스

- 
- 1) ① 블라디미르 프로프, 유영대 역, 『민담 형태론』, 새문사 1987. ② 블라디미르 프로프, 최애리 역,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1 참조
- 2) ① 안느 위베르스펠드, 신현숙 역, 『연극기호학』, 문학과지성사 1988. ② T. 토도로프, 신동욱 역,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③ 제랄드 프랭스, 최상규 역, 『서사학』, 문학과지성사 1988 참조
- 3) 이재선, 『문학주제학이란 무엇인가』(민음사 1996) 은 이 분야에 대해 최초의 본격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식으로 분류하면, 플롯은 단 두 개의 유형, 즉 비극과 희극으로 나뉘지만, 논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 본고는 한국 근대극을 대상으로 플롯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플롯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근대극의 개요(아우트라인)을 작성하는 일은 한국 근대극의 연구자료를 정리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플롯은 인류의 공통된 자산이며, 또 한 시대의 공통된 자산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플롯의 유형을 연구한다는 것은 인류가 지닌 이야기의 보편적인 형태를 탐구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 시대의 관객 작가들 사이에 통용되었던 연극적 의사소통의 관습을 탐구하는 작업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플롯 유형은 그 시기에 상연되었던 드라마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동양연극과 서양연극, 폐쇄희곡과 개방희곡, 극적인 구성과 서사적인 구성, 언어적 연극과 행동적 연극, 박스형 무대와 열린 무대, 사실주의극과 낭만주의극 등 연극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많은 개념(주로 이항대립적인)들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플롯 유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다.

## 2. 연구 내용과 범위

플롯 유형 연구는 민담, 현대소설, 영화, 만화 등 모든 이야기 형식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형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 근대 희곡’은 플롯 유형 연구의 대상으로 가능하며 적절하다고 본다.

첫째, 연극에서 플롯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이 여섯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결합, 즉 플롯이다. 비극은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생활과

행복과 불행을 모방한다. (...) 따라서 사건의 결합, 즉 플롯이 비극의 목적이며, 목적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 행동없는 비극은 불가능하겠지만, 성격 없는 비극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그의 비극론이 플롯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가 플롯의 유형을 탐색할 때, 일차적으로 연극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전략으로 보인다.<sup>4)</sup>

둘째, 희곡은 소설에 비해 주인공과 그가 처한 갈등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기 쉽다. 소설의 경우, 주인공에서부터 작중 화자, 작중 인물, 작중 청자, 청자 등의 개념이 시점·거리 문제 등과 얽혀 매우 복잡다기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희곡의 경우에는 작가의 목소리와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분리되어 있고, 주제와 대상, 수신자와 발신자, 협조자와 반대자 사이의 이항대립을 찾아 작품 구조를 해석하는 작업이 소설에 비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표현을 빌면 연극은 “하나의 갈등에 연루된 배우들이 함께 하는 장소(a place where impersonators engaged in a conflict)”로 요약되는데, 이를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3 개의 벽 2 명의 배우 1 개의 정열(three boards, two actors, and a passion)”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sup>5)</sup> 위의 내용을 풀이하면, 연극은 3개의 벽으로 구성된 무대 속에서 2명의 배우들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명의 배우가 무엇을 주제로 경쟁(갈등)한다”는 명제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본고에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희곡을 이처럼 간단한 서술형식

4)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에서 인물 성격보다 플롯이 강조되어야 함을 그림에서의 밑그림과 색채에 비유한 바 있다. “그림의 경우 아무리 아름다운 색채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밑그림이 잘못 되어 있으면 훌륭한 그림이 될 수 없듯이, 드라마에 있어서도 성격 묘사와 조사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플롯이 잘못 구성되면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1994. 49~51면

5) Sylvan Barnet, Morton Berman, William Burto, ed., *The Type of Drama—Plays and Drama*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1993), p.3.

으로 배열함으로써, 희곡의 주체/대상/주제어의 관계를 분명히 제시할 계 획이다.

셋째, 우리 근대극은 대부분 50~100분 정도의 상연시간에 맞추어서 제 작된 것이어서, 적어도 길이의 차원에서, 표준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50~100분 정도의 상연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 사건, 배경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따라서 이야기의 진행을 몇 개의 행위소로 정리하는 일이 소설이나 다른 서사양식에 비해 비교적 쉽다. 한국 근대극의 대표작이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 이미 그 대표성을 확인받은 바 있으며, 그 숫자 가 다른 문학양식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점도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의 연구를 통해서도 그에 대한 자료 정리와 분류 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작업은 다른 이야기 양식의 플롯 유형을 탐구하는 데에도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 근대희곡 중 100여편을 선정했다. 이 대표작 선 정은 우선 1991년 연극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 선 정위원을 위촉하여 선정한 ‘신극 80년사 대표희곡 40 선’<sup>6)</sup>을 모두 포함하 고, 그 이외에는 기존의 희곡 문학 전집에서 적어도 두 차례 이상 게재된 작품,<sup>7)</sup> 기존의 희곡사·연극사 관련 저서에서 적어도 소제목 단위 이상 의 주목을 받은 작품을 보태었다. 또한 희곡전집이나 희곡사 등에서 아 직 다루어지지 못한 1980년대 이후의 작품은 대한민국연극제·서울연극 제에서 대상과 극본상을 받은 작품, 비교적 주목을 받은 희곡집에서 골 랐다. 또한 한 작가의 작품이 6편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6) 『한국연극』, 1991.2 참조.

7) 참조한 작품집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현대대표희곡선집』 (전 2권), 월인, 1999. ② 서연호 편, 『한국의 현대희곡』(전 3권, 열음사 1989. ③ 한국연극협회 한국연극사 편, 『한국희곡문학대계』(전 5권, 한국연극사, 1980. ④ 『한국현대문학전집: 희곡편』(전 2권, 삼성출판사, 1978. ⑤ 『정통한국문학대계』, 어문각, 1994. ⑥ 하유상 편, 『단막희곡 28인선』, 성문각, 1970.

### 3. 연구 방법론

본 연구의 방법론은 흔히 플롯 시학, 주제학, 서사학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츠베탕 토도로프의 ‘구조시학’과 ‘산문 시학’, S 리몬-케넌의 ‘소설의 시학’, 파벨의 ‘플롯 시학’, 제랄드 프랭스의 ‘서사학’, 프로트의 ‘민담 형태론’ 등에서 상당한 시사를 얻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텍스트의 공통점을 찾는 데에 주력한다는 점에서, 개별 작품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작품 내재적 비평과는 정반대의 편에서 있으며, 이는 넓게 보아 문학 주제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up>8)</sup> 이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안느 위베르스펠트의 ‘연극기호학’을 원용한 논문들이 행위소 모델 분석을 통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본격적으로 연극의 플롯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파벨의 ‘플롯 시학’을 원용한 김성희의 논문, ‘극적 상황’의 유형과 양상을 분류한 이홍우의 논문<sup>9)</sup>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출발이 된 것은 블라디미르 프로프의 ‘민담 유형론’에 대한 정리, 로널드 토비아스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가지 플롯』, 테오도르 생크의 『500편의 희곡 개요: 플롯 개요와 공연노트』 등에서 활용된 연구방법론이다. 프로프의 저서는 등장인물의 기능에 주목하여 설화가

8) 문학 주제학(Literary Thematics)은 주제, 모티브 및 상징(이미지) 연구나 주제 읽기에 근거한 비평이다. 그간에는 주제 연구를 흔히 소재주의에 빠진 이론적으로도 퇴락한 연구 양상으로 폄하되어 왔으나, 이제는 고무적인 복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마리 로르 라이언의 「서사적 주제를 찾아서」는 플롯 줄거리 산출을 전산화한 시스템에 기초가 될 플롯의 형식 모형을 제안하고 있는데, 주제론적 연구들은 문학작품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모티브·이미지를 추적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의 연구를 보완하고, 문학의 가변적인 요소와 불변의 요소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재선 편, 앞의 책, 서문 참조.

9) 김성희, 『한국 희곡과 기호학』, 집문당, 1993. 이홍우, 『한국 희곡과 극적 상황』, 월인, 1999.

배열되는 순서에 주목하였고, 토비아스는 플롯이 독창적인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공공자원임을 강조하였고, 테오도르 생크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극의 플롯이 역사적·문화적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 유형화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연구들은 일단 많은 작품을 읽어내어 이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토비아스의 관점은 논리적인 법칙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플롯을 유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론적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토비아스는 플롯을 일단 ‘마음의 플롯’과 ‘몸의 플롯’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을 추구한다’는 플롯이 내면적인 추구로 나타날 때에는 ‘추구의 플롯’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모험의 플롯’으로 규정된다. 그러니까 토비아스가 분류한 20개의 플롯은 결국 10개 정도의 플롯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20개의 플롯을 ‘마음/몸’의 쌍으로 묶어 다시 배열하면, ① 추구/모험 ② 추적/구출 ③ 탈출/복수 ④ 수수께끼 라이벌 ⑤ 희생자/유혹 ⑥ 변신/변모 ⑦ 성숙/사랑 ⑧ 금지된 사랑 희생 ⑨ 발견/지독한 행위 ⑩ 상승/몰락으로 분류된다.<sup>10)</sup>

본고에서는 그의 분류를 원용하되, 한국 근대극의 유형에 걸맞게 상당부분 변형할 필요가 있었는데, 토비아스가 제시한 유형 중 ②와 ③은 주로 헐리웃 영화에 자주 출현하는 유형이고, ⑥은 동화와 민담에 자주 출현하는 형식일 뿐, 한국 근대극에서는 그 유형을 찾아보기 힘들어 따로 유형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또 ④는 라이벌끼리 수수께끼 등을 놓고 다투는 유형이지만, 이는 연극 형식에서는 극중극이나 서사극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토론의 플롯’으로 유형 이름을 바꾸었다. 또한 나머지 유형도 우리 극의 주제에 따라 약간의 변형을 가해 다음과

10) 로널드 토비아스, 김석만 역,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가지 플롯』, 풀빛, 1998.

같은 여섯 개의 플롯 유형을 새로 설정했다.

- ① 추구·모험의 플롯
- ② 사랑·성숙의 플롯
- ③ 상승·하강의 플롯
- ④ 경쟁·투쟁의 플롯
- ⑤ 금지·희생의 플롯
- ⑥ 재판·토론의 플롯

#### 4. 여섯 개의 플롯 유형에 관한 기초 연구

##### 1) 추구·모험의 플롯

추구·모험의 플롯은 ‘주인공이 ~을 추구한다’는 서술형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 플롯의 주제어로는 ‘추구, 모험, 방황, 기다림’ 등을 예거할 수 있다. 이러한 플롯유형에서 추구하는 대상은 돈·직업·정체성·가족·애인·사랑·진실·권력·자유·지식·종교 등 매우 다양하지만, 추구하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고 주인공이 왜 대상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관객에게 주어진다. “주인공이 왜 대상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발신자 영역을 강조한 것이며, “주인공이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가”라고 ane게 되면, 대상이 강조된다. 우리의 고전소설을 예로 든다면,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이런 유형의 한 예를 찾을 수 있다. 홍길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방황과 모험의 길에 나선다.<sup>11)</sup> 본고에서는 이하 16편의 작품을

11) 본고에서는 희곡의 플롯 유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대표적인 고전소설을 비유로 활용하고 있다. 즉 <홍길동전>은 추구·모험의 플롯, <춘향전>은



이 유형에 포함시켰다.

김우진 <산돼지>(1926), 최원봉은 산돼지와도 같은 삶의 정열을 추구한다.  
홍사용 <출가>(1927) 실패자는 출가를 결행하면서 삶의 진리를 추구한다.  
김영팔 <여성>(1927) 여학생 경숙은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를 얻고자 한다.

박승희 <이 대감 망할 대감>(1928) 내수는 심술궂은 대감을 협박하여 벼슬을 얻고자 한다.

이무영 <한낮에 꿈꾸는 사람들>(1932) 미숙한 예술지망생들이 모여 각기 자기 나름의 예술을 추구한다.

유치진 <소>(1935) 국서네 가족들은 소를 차지하기 위해 각자 안간힘을 쓴다.

함세덕 <동승>(1938) 도념은 절을 떠나 어머니를 찾고자 한다.

이근삼 <원고지>(1960) 교수는 원고 쓰는 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순수한 이상을 회복하고자 한다.

천승세 <만선>(1964), 곰치는 고기떼를 쫓아가려 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근삼 <국물 있습니다>(1966) 상범은 세속적인 출세를 추구한다.

하유상 <꽃상여>(1972) 여성들은 각자의 정체성을 추구한다

이근삼 <유랑극단>(1975) 배우들은 유랑의 길을 떠돌면서도 지속적으로 연극을 추구한다.

윤조병 <휘파람새>(1984) 태진은 잃어버린 건강한 생명력을 찾아 헤맨다.

이강백 <유토피아를 먹고 잠들다>(1987) 민의식은 유토피아를 추구한다.

이만희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1990) 도법 스님은

사랑·성숙의 플롯, <양반전>은 상승·하강의 플롯, <홍부전>은 경쟁·투쟁의 플롯, <심청전>은 금지·희생의 플롯, <구운몽>은 재판·토론의 플롯에 각각 연관된 것으로 보았다. 이상 열거한 고전소설들은 우리의 민족정서를 함축하고 있는 '민족적 원형 심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인류의 '보편적 원형 심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희곡 작품내에 담긴 원형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종교적 진리를 추구한다.

김명곤 <걱정만리>(1991) 배우들은 연극을 공연하기 위해 긴 세월을 방황한다.

우리 근대극이 형성된 시기는 개인과 민족의 생존 여부가 가장 긴요한 시대적 과제였던 만큼, 주인공이 추구하는 주제도 빈곤에서의 해방 재물과 권력의 추구 등이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머니 찾기에서부터 관념적인 종교적 진리 찾기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은 비교적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 2) 사랑·성숙의 플롯

사랑·성숙의 플롯에서 남녀는 서로 사랑을 추구하지만, 사랑에는 장애가 주어지며,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정된다. 사랑의 플롯은 너무도 자주 반복되는 유형이지만, 연극내에서 사랑은 변질되거나 좌절된다. 이 유형은 보편적인 사랑을 발신자로 설정한 후, 사랑을 가로막는 요소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호소한다. 우리 고전소설에서는 <춘향전>에서 이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플롯유형에서 빈도수가 높게 다루어지는 주제어는 ‘사랑, 음모, 배반, 삼각관계, 결혼, 이혼, 이별, 죽음’ 등이다. 본고에서는 이하 13편의 작품을 이 유형에 포함시켰다.

12) 로널드 헤이먼, 김만수 역, 『희곡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현대미학사, 1994 참조. 희곡을 분석할 때 인물들의 정체성(identification)을 찾는 것보다는 인물들의 기능(function)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함수  $f(x) \rightarrow y$ 를 풀기 위해서는 가변요소인  $x$ 보다  $x$ 를 움직이게 하는 기능(Function)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비유할 수 있다.

이광수 <구한>(1917) 최씨는 남편이 이혼을 선언하자 정신착란에 빠진다  
최승만 <황혼>(1919) 유부남 김인성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자살한다  
박승희 <홀아비 형제>(1928) 홀아비 형제는 여우 귀신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것은 꿈 속의 일이다.

임선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1936) 홍도는 주변사람들의 음모로 남편  
에게서 버림받는다.

이서구 <어머니의 힘>(1937) 어머니는 자식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다  
함세택 <해연>(1940), 소년과 소녀가 사랑에 빠지지만 그들이 이복 남매  
임이 밝혀진다.

오영진 <맹진사댁 경사>(1943) 주인공은 갑분이 대신 입분이와 결혼한다  
차범석 <산불>(1962) 사월이와 점례는 한 남자를 두고 사랑의 경쟁 관계  
에 들어간다.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1970) 온달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강백 <결혼>(1972) 여자는 빈털터리인 남자를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 결  
혼한다.

최인훈 <둥둥 낙랑둥>(1978) 호동왕자는 의붓어미인 왕비와 사랑에 빠  
진다.

김광림 <그 여자 이순례>(1990) 주인공은 이순례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남  
기고 죽는다.

이만희 <돌아서서 떠나랴>(1996) 남녀는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에 놓인  
까닭에 사랑에 실패한다.

이들 작품들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배  
경에는 여러 사회적 요소가 개입된다. 한국 근대극에서는 사랑의 플롯을  
다룰 때, 사랑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남녀의 사랑을 둘러싼 사회적 요  
소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을 다루는 플롯의 경  
우, 사랑에 대한 시련이 클수록 오히려 꽃은 화려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러므로 사랑의 플롯에서는 사랑 자체보다는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

한 언급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사회적 금기(신분, 인종, 종교, 윤리)의 위반은 사랑의 플롯에서 필수적이며, 이러한 위반을 통해 인간과 사회는 변모되고 성숙된다. 서리를 맞아야 맛이 깊어지는 열매처럼 사랑에 기초한 시련은 이 유형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위의 작품들에서 신분적 장애(예를 들어 기생이라는 신분, 인종적 장애 예를 들어 적국 공주와 사랑을 나누는 왕자), 윤리적 장애(유부녀와 유부남, 근친상간의 두려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한국 근대극에서 종교적 장애에 의한 사랑의 좌절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 3) 상승·하강의 플롯

이 플롯 유형에서는 주로 신분·계층·계급적인 문제가 다루어진다. 어느 한 편은 상승하고, 어느 한 편은 하강함으로써 둘 사이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상승/하강의 쌍은 필사적인 대립을 낳고 있어서 이념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 유형은 현대에 올수록,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개인의 불안감과 소외를 그리는 데에도 자주 적용된다. 점차 강해져가는 사회의 매커니즘, 그럴수록 왜소해지는 개인의 모습은 상승과 하강의 구도 속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 고전 소설에서 예를 찾는다면, 박지원의 단편소설들을 들 수 있다. 박지원의 소설은 하강하는 신분으로서의 양반과 상승하는 신분으로서의 농민계층을 대립시키고 있다. 이하 16 편의 작품은 상승·하강의 플롯에 의존하고 있다.

김정진 <기적 불 때>(1924) 경삼의 가족들은 모두 노력하지만 점차 그들의 삶이 점차 궁핍해진다.

유치진 <토막>(1931) 가족들은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들은 이미 죽었다.

- 유치진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1933) 계순은 가난 때문에 서울의 청루로 팔려간다.
- 유치진 <빈민가>(1933) 따스는 노동운동을 하다 체포되고, 쇼우스는 폐병으로 병사한다.
- 채만식 <심봉사>(1936) 심봉사는 심청의 도움으로 안정을 되찾지만 결국 파멸하고 만다.
- 채만식 <제향날>(1937) 할머니는 역사에 희생된 남편과 아들의 이야기를 꺼낸다.
- 채만식 <당랑의 전설>(1940) 박진사는 재산을 지키고자 하나, 미두 시장에서 파산하고 만다.
- 송영 <황혼>(1945) 해방이 되어 친일파는 몰락하고, 옥천 마님은 새로운 다짐을 한다.
- 함세덕 <기미년 3월 1일>(1946) 민족대표 33인은 학생들에게 3·1 운동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만다.
- 신고송 <서울 갔든 아버지>(1946) 아버지는 서울에 가서 노동자들의 승리를 예감하게 된다.
- 함세덕 <고목>(1947) 박거복은 고목을 독차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빼앗기고 만다.
- 오영진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1949) 이중생은 재산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파산하고 만다.
- 이재현 <엘리베이터>(1972) 남편은 엘리베이터에서 상승의 공포감에 시달린다.
- 윤대성 <출세기>(1974) 광부 김창호는 극적으로 구조되어 메스컴의 관심을 끌지만, 결국 버림받는다.
- 이강백 <봄날>(1984) 아버지는 겨울처럼 차갑지만 자식들과 젊은 여자는 봄날처럼 따뜻하다.
- 이근삼 <향교의 손님>(1986) 학자는 자신이 거지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닫는다.

이 유형에서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주체와 대상 사이의 대립이 첨예하게 강조된다. 그러나 상승·하강의 플롯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에 다룰 경쟁·투쟁의 플롯과는 구분된다. 상승·하강의 플롯은 인물들의 이념적·심리적 대립을 주로 다루며, 경쟁·투쟁의 플롯에서는 대상과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쟁에 입각한 까닭에 주로 행동적 대립을 추구한다. 상승·하강을 다룬 플롯유형의 주체어로는 ‘상승, 하강, 몰락, 파멸, 죽음, 궁핍, 불안, 소외’ 등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체어는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주로 반영한다.

#### 4) 경쟁·투쟁의 플롯

이들 플롯 유형은 주체와 대상 사이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을 다룬다. 주인공은 선한 존재로 설정되며, 주인공이 투쟁하는 대상은 악의 이미지(일제·공산주의·군부독재·사회적 인습 등)로 설정된다. 이처럼 뚜렷한 선악의 대립은 고전 소설 <홍부전>에서 홍부와 놀부의 대립에서 전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수동적인 투쟁 형식으로서의 ‘수난’도 자주 취급된다. 이하 13편의 작품을 예로 들었다

조일재 <병자삼인>(1912) 남자들은 여자들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 거짓 계획을 꾸민다.

김영팔 <부음>(1927) 사회운동가 경수는 부음을 받고 집으로 떠나지만, 남은 두 여성이 그 뒤를 잇는다.

조용만 <감오세>(1931) 착취를 당하던 노인들이 사또의 횡포에 맞서 저항에 나선다.

송영 <호신술>(1931) 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호신술을 배우지만, 역부족이다.

유진오 <박침지>(1932) 체념적이던 박침지는 점차 농민들의 투쟁의 대열에 합류한다.

김남천 <조정안>(1932) 자본가는 신간회 간부와 함께 노동파업을 막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오태석 <태>(1974) 왕권을 탈취한 세조는 신하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다.

윤조병 <농토>(1980) 노예로 살아온 한 가족이 3대에 걸쳐 비극적 사건과 양반들의 가혹함에 의해 수난을 당한다.

이강백 <주라기의 사람들>(1982) 광부 만석은 광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조작된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오태석 <자전거>(1983) 윤서기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과거의 불행한 사건들을 회상한다.

김의경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1985) 관동대진재 때 조선인 가족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수난을 당하고 급기야 죽는다.

공동창작, <금희의 오월>(1987) 정연은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 죽는다  
오태석 <부자유친>(1988) 영조는 사직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식을 살해한다.

이 유형의 주제어로는 ‘투쟁, 경쟁, 저항, 수난, 고통, 죄의식, 계략, 순교’ 등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를 주된 토픽으로 취급한다. 인물은 유형화되어 있는 반면, 인물이 부딪치는 상황은 시대적인 문제이므로, 이들 유형에서는 그 시대의 첨예한 사회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 5) 금지·희생의 플롯

어느 사회이든 개인을 옥죄는 질곡은 있게 마련이다. 이 플롯 유형에서는 이러한 금지를 묘사하며, 금지에 의해 희생되는 개인을 다룬다. 고전소설 <심청전>에서 심청은 자신의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궁극에는 희생된다. 이처럼 사회에 존재하는 부당한 억압 그리고 이로

인한 희생은 금지·희생의 플롯을 생성시킨다. 이하 16 편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 이광수 <순교자>(1920) 돌이는 누이동생과 신부를 대신하여 희생된다.
- 김유방 <삼천 오백냥>(1924) 택성은 갈보로 팔려가게 될 서분을 구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다.
- 김우진 <난파>(1926)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억압받는다.
- 김우진 <이영녀>(1927) 이영녀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수난을 당하지만 탈출할 수 없고 결국 죽는다.
- 박승희 <고향>(1928) 노인과 외손주 은숙은 기식하던 술집에서의 확대에 견디다 못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 함세덕 <무의도 기행>(1941) 천명은 육지로 탈출하고자 하나, 결국 바다에서 죽게 된다.
- 유치진 <나도 인간이 되련다>(1953), 주인공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유를 잃는다.
- 차범석 <불모지>(1958), 가족들은 그들의 좁고 낡은 집에서 탈출하고 싶다.
- 최인훈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1976) 아기장수의 출현을 겁낸 사람들이 아기장수를 살해한다.
- 최인훈 <달아 달아 밝은 달아>(1978) 심청은 스스로 희생양이 된다.
- 이현화 <0.917>(1979) 주인공은 성의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방법이 없다.
- 박조열 <오장군의 발톱>(1989) 오장군은 전장에서 억울한 희생양이 된다.
- 정복근 <표류하는 너를 위하여>(1990) 청소년 세대인 성희는 기성세대의 압박 때문에 표류한다.
- 오중우 <칠수와 만수>(1990) 두 사람은 자신의 직업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된다.
- 오태석 <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1991) 심청이는 가혹한 사회적 환경과 개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희생된다.



이근삼 <이성계의 부동산>(1994) 이성계는 노인 복지시설에서 거짓 연극 속으로 도피한다.

이 유형의 주제어로는 ‘금지, 억압, 희생, 죽음, 탈출, 구출, 표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주인공은 대부분 갇혀 있다 폐쇄된 공간에서 겪는 폐쇄공포증은 현대연극의 주제로 자주 다루어지는데, 위의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강박증, 물질적 가난, 사회적 편견 등에 갇혀 있다

#### 6) 재판·토론의 플롯

우리의 고전소설 <구운몽>은 불교적 세계관의 일방적인 개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의지와 이를 제어하는 불교적 세계관의 대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논쟁적인 텍스트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재판·토론의 플롯은 라이벌 간의 토론에 입각한다. 라이벌을 다룬 플롯들은 한쪽의 일방적인 우세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약자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극의 긴장과 재미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씨름경기에서 능숙한 선수는 적의 힘을 이용하여 승리하듯, 라이벌 사이의 투쟁에는 일방적인 승리보다 지속적인 대립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 이 플롯 유형에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보다는 ‘재판, 토론, 대화, 비교, 언쟁, 반성, 고민, 극중극, 병렬’이 주제어로 취급된다. 이하 29편의 작품을 예로 들었다.

윤백남 <국경>(1918) 남편이 허영에 빠진 아내를 나무라다 부부싸움으로 변한다.

윤백남 <운명>(1921) 사진 결혼한 신여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만 이미 늦었다.

조명희 <김영일의 사>(1923) 고학생 김영일은 자신의 인생관이 과연 맞는지 고민한다.

- 김정진 <15분간>(1924) 자본가 석사란과 문학비평가 김진언은 삶의 진실이라는 문제를 걸고 내기를 한다.
- 김동환 <불복귀>(1926) 남자는 여자에게 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잣집 첩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지만, 여자는 결국 자기의 길을 떠난다.
- 김영팔 <싸움>(1926) 부르조아 근성을 지닌 아내와 프롤레타리아 의식을 지닌 남편이 서로 다룬다.
- 김태수 <노동자>(1927) 기생인 월영은 기자인 임에게서 계급의식을 배운다.
- 이기영 <그들의 남매>(1929) 술집 여급과 남자 손님이 만나 가장 정직한 사람은 노동자라는 데에 공감한다.
- 송영 <황금산>(1936) 이문호는 바보스러운 황금산을 사위로 삼으려 했으나, 자기가 잘못 생각했음을 반성한다.
- 이광래 <촌선생>(1936) 촌선생은 도시 취향의 큰아들과 농촌 취향의 둘째 아들 중 누가 더 바람직한가 생각하게 된다.
- 송영 <윤씨 일가>(1939) 윤씨는 회사에서의 승진을 위해 딸을 후처로 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 노경식 <달집>(1971) 억척스러운 어머니상과 부드러운 어머니 상을 비교한다.
- 이재현 <포로들>(1972) 포로들은 포로수용소에서 남과 북의 선택을 놓고 고민한다.
- 김의경 <남한산성>(1973) 남한산성에 갇힌 조정의 신하들이 주전론자와 화전론자로 나뉘어 논쟁한다.
- 이강백 <파수꾼>(1973) 소년 파수꾼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나 총장의 반대에 부딪친다.
- 차범석 <새야 새야 파랑새야>(1974) 전봉준의 수제자 둘은 각기 다른 노선을 택한다.
- 이강백 <보석과 여인>(1975) 보석과 여인 사이의 모순 관계에 대해 고민한다.

신명순 <전하>(1979) 배우들은 신숙주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위해 연극을 펼친다.

김상열 <언챙이 곡마단>(1982) 전쟁의 비극을 연극놀이로 표현한다

이강백 <호모 세파라투스>(1983) 남과 북의 모습을 비교한다

황석영 <한씨연대기>(1984) 의사 한영덕의 비극적인 삶은 누구의 책임인가 묻는다.

윤대성 <불타는 별들>(1985) 청소년들이 연극 재판을 통해 우리 교육과 사회제도의 획일성을 비판한다.

김광림 <달라진 저승>(1987)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한다.

신명순 <증인>(1988) 변호사는 최대령의 억울한 희생에 대해 그 의미를 질문한다.

이현화 <불가불가>(1988) '불가'를 외치는 자와 '가'를 외치는 자 사이의 토론이 전개된다.

이운택 <오구-죽음의 형식>(1990) 삶과 죽음, 슬픔과 기쁨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최현목 <상화와 상화>(1993) 시인 이상화의 두 분신은 시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토론한다.

이강백 <북어대가리>(1993)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른 '기암'과 '자양'이 자신의 인생관에 대해 토론한다.

이강백 <영월행 일기>(1995) 여주인공은 자유를 얻는 대신 편안한 복종을 원한다.

재판·토론의 플롯은 최근에 이를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주로 사실주의극으로 특징지어지는 전통적인 근대극에 비해, 현대 연극이 사실의 재현보다는 사실에 대한 회의와 부정을 주로 다루며, 선악의 대립에 기초한 계몽적인 주제 제시보다는 관객에 의해 새롭게 수용될 수 있는 간접적인 주제 제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 5. 플롯 유형에 관한 기초 연구의 활용 가능성

본 연구는 ① 한국 근대극의 주제를 분류하여 6개의 플롯 유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개괄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단계 ② 6개의 플롯유형으로 구분된 작품을 대상으로 삼아 그 작품의 행위소(actant)들을 열거하고 이들 자료들을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참조할 수 있게끔 하는 단계로 구분되며, 이번 논문은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①의 단계를 다루었다.<sup>13)</sup>

②의 단계는 6개의 유형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작업이며 이는 각각 독립된 과제로 수행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후일로 미루기로 한다. ②의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주제어 검색’ 프로그램은 일종의 드라마 시소러스(drama thesaurus)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것이다. ‘드라마 시소러스’는 개별 작품을 10~20개 정도의 행위소로 요약하고, 각 화소에 대해 주제어(검색어)를 부여하여 그 토픽의 유형을 파악하게 만드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유치진의 「토막」은 기대, 좌절, 그리움, 죽음, 이별, 유랑, 한탄, 실성, 분노 등의 주제어를 포함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임선규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는 사랑, 우정, 약속, 배반, 음모, 반전, 살인, 복수 등의 주제어가 포함된 것으로 일단 분류할 수 있다.(주제어는 토비아스의 플롯 유형에 따라 추구, 모험, 추격, 구출, 탈출, 복수, 수수께끼, 라이벌, 희생자, 유혹, 변신, 변모, 성숙, 사랑, 희생, 상충, 몰락 등 20개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혹은 프로프의 분류에 따라 31개의 모티브로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한 분류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은 본 연구의 이후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13) 이상 설정한 플롯 유형은 가설에 지나지 않으며, 좀더 정밀한 독서에 의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시기별, 양식별 특성을 감안하여 작품 선정에도 좀더 엄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가설을 내세우는 이유는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상 불가피한 점도 있음을 밝혀둔다.

이렇게 작품들을 열 개 남짓의 행위소로 나누고, 그들 행위소에 주제를 부여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드라마 시소러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랑’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박승희의 「아리랑 고개」, 유치진의 「토막」, 함세덕의 「동승」, 이근삼의 「유랑극단」, 아리랑 극단의 공동창작 「격정 만리」 등의 작품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영화로 확대한다면, 나운규의 「아리랑」이 포함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 근대극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주제들을 빈도순으로 나열하고, 그 주제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며, 어떤 플롯 유형을 형성하게 되는가를 다루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대략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 근대극 중 대표작에 해당하는 작품군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총정리하는 기회가 된다.
- 2) 이들 작품에 포함된 주제 등장인물의 행동양식 플롯의 구성방식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된다.
- 3) 정리된 이들 자료는 한국 근대극의 플롯 유형을 진단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각색과 창작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극, 영화, TV드라마와 함께 각종 문학장르들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이들 개별적인 예술양식들은 다른 예술양식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들 작품들간에 각색과 패로디 등의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심지어는 이들 작품들의 개요가 DB화되어 다른 작품의 산출과 재창조에 활용되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작품들을 모아, 본문 전체를 DB화하는 일, 작품의 개요를 DB화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축적된 DB는 검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창작과 각색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드라마 시소러스, 혹은 관용어 은행(idiom bank), 스토리 은행(story bank)의 성격을 담고 있다<sup>14)</sup>

이 논문은 이를 위한 사전 초석을 다지는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추후 전개될 수 있는 본 연구의 작업일정은 ① 한국 근대극의 플롯유형을 좀더 보완하고 이에 해당하는 작품을 보완하는 단계. ② 이들 작품을 10~20개 정도의 행위소(줄거리)로 나누어 서술하고, 각 행위소 단위에 '주제어'를 부여하는 단계. ③ 주제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 ④ 이를 근거로 주제어의 빈도, 주제어의 배열 순서 등을 파악하는 단계. ⑤ 주제어가 배열된 순서에 유의하여 플롯 유형을 재수정하는 단계. ⑥ 이상의 연구가 작품의 각색 패로디 상호텍스트성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자료집

- 민병욱, 『한국 희곡사 연표』, 국학자료원 1995.  
 서연호 편, 『한국의 현대희곡』 1~3 권, 열음사 1989.  
 \_\_\_\_\_ 편, 『한국희곡전집』 1~5 권, 태학사, 1996.  
 양승국 편, 『월북작가 대표희곡선』, 예문 1988.  
 \_\_\_\_\_ 편, 『해방공간 대표희곡』, 예문, 1989.  
 \_\_\_\_\_ 편, 『한국근대희곡작품자료집』, 아세아문화사, 1988.  
 하유상 편, 『단막희곡 28인선』, 성문각, 1970.  
 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현대대표희곡선집』 1~2 권, 월인 1999.  
 한국연극협회 한국연극사 편, 『한국희곡문학대계』 1~5 권, 1980.  
 『정통한국문학대계』, 어문각, 1994.  
 『한국현대문학전집: 희곡선집』 1~2 권, 삼성출판사, 1978.

- 14) 이에 대한 최초의 적극적인 관심으로는 안당, 『드라마 시소러스』(예술의 전당, 1994)를 들 수 있으나, 이 책에서는 드라마의 줄거리를 요약 서술하는 것에 그쳐 주제어, 플롯 유형에 대한 분류가 시도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 2. 국내 저서

- 김성희, 『한국 희곡과 기호학』, 집문당 1993.  
 이재선 편, 『문학 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흥성사, 1980.  
 서연호, 『한국근대연극사』, 고려대출판부, 1990  
 이홍우, 『한국 희곡과 극적 상황』 월인 1999.  
 안당, 『드라마 시소러스』, 예술의 전당 1994.

## 3. 국외 저서

-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1994.  
 제랄드 프랭스, 최상규 역, 『서사학』, 문학과지성사, 1988.  
 S. 리몬-케년,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츠베탕 토도로프, 광광수 역, 『구조 시학』, 문학과지성사 1977.  
 로널드 헤이먼, 김만수 역, 『희곡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현대미학사 1995.  
 로널드 토비아스, 김석만 역,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가지 플롯』, 풀빛  
 1998.  
 블라디미르 프로프, 유영대 역, 『민담 형태론』, 새문사, 1987.  
 \_\_\_\_\_, 최애리 역,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1.  
 T. 토도로프, 신동욱 역,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루이스 E. 케트론, 홍창수 역, 『희곡 쓰기의 즐거움』, 예문 1999.  
 레이조스 에그리, 김선 역, 『희곡 작법』, 청하, 1991.  
 안느 위베르스펠드, 신현숙 역, 『연극기호학』, 문학과지성사 1988.  
 Peter Putz, 조상용 역, 『드라마 속의 시간: 긴장 조성의 기법』, 들불, 1994.  
 B. 아스무트, 송전 역, 『드라마 분석론』, 한남대학교출판부, 1995.  
 빠트리스 파비스, 신현숙 · 윤학로 역, 『연극학 사전』, 현대미학사, 1999.  
 W. Elizabeth Dipple, 문상득 역, 『플롯』,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Thomas G. Pavel, *The Poetics of Plot*, Univ. of Minnesota Press, 1985.  
 Sylvan Barnet · Morton Berman · William Burto, *Types of Drama*, Harper Collins, 1993.  
 Theodore J. Shank ed., *Digest of 500 plays: plot outlines and production notes*, Crowell Collier Press,  
 1963.  
 Robert Scholes · Robert Kellogg, *The Nature of Narrative*, Oxford Univ. Press, 1979.

■ Abstract

**The Fundamental Study on the Plot -types in Korean Modern Plays**

-Through the Classification, Search and Use of the Thematic Topics

Kim, Man -su

The main topic of this paper is the plot -types in Korean modern plays. I have read 100 plays and outlined it briefly and classified it into six plot types: ① plot of seek and adventure ② plot of love and maturity ③ plot of rise and fall ④ plot of competition and struggle ⑤ plot of prohibition and sacrifice ⑥ plot of judgement and discussion.

Each plot-type has the keyword which includes many actant models. This paper is oriented to "The Fundamental Study on the Plot -types in Korean Modern Plays: Through the Classification, Search and Use of the Thematic Topics". Therefore this paper is only basic and experimental.

But we can start the discussion of plot-types and classify it to search and use it in terms of 'Drama Thesaurus'. Drama thesarus can be used as the fundamental data of the literary thematics and narratology. We can start our deep study toward the adaptation, parody, intertextuality from it.

주제어 : 플롯 유형, 문학 주제학, 주제어, 행위소, 분류, 드라마 시소러스

접수일 : 2002년 8월 25일

심사기간 : 2002년 9월 5일 ~ 20일

게재결정 : 2002년 9월 27일(편집위원회의)